

퇴직에 즈음하여...



교장 채종숙

1966년 기독교 학교인 인성여중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려운 시절에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곳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교사, 교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학력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성에서 함께한 사랑하는 교직원들~ 점점 어려워지는 교육활동 속에서 제가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한 여행과 연수들, 그 동안의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잊지 못할 시간들입니다. 집보다도 학교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더 많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겨 놓겠습니다. 인성을 떠나서도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성의 후배 여러분~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요즘 고령화 시대로 100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산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없으며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여러분의 진로를 찾고 실력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을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제 퇴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점점 실감을 하며 담담히 맞이하려 합니다. 사립학교는 변동이 없어서, 이곳에서 37년 이

라는 오랜 시간을 몸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합하면 모교인 인성의 교정에서 43년을 생활한 셈입니다. 내 인생의 2/3를 인성에서 보낸 것입니다. 모교라 어려움 없이 스승님 밑에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되어 학교를 떠나려 하는데 기쁜 마음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제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퇴직 2,3년 전부터 퇴직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늘 학교생활로 바빴습니다. 올해도 1 학기를 여유를 가지고 보내고 싶었는데...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퇴직 후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되어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여행도 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생각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나태한 생활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여행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행 할 나라가 최적의 기후일 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성지순례도 꼭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며 봉사도 해야겠습니다. 친구들과도 열심히 만나며 우정을 돈독히 쌓아 나가야 하겠지요. 해야 할 일들을 메모해서 실천해 보려 합니다.

‘인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성이 그리고 인성의 후배들이 진정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볼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몸은 떠나지만 벼속까지 인성인으로서 항상 응원하며 기쁘게 우리 학교와 속한 이들의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